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여성의 자결 시도와 자결 논쟁*

조혜진**

- I. 서론
- II. 자결 시도의 양상
- III. 자결 논쟁의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서 여성인물의 자결 시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결 시도는 한 두 차례에 그칠 뿐이며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옥원재합기연』 연작은 독특한 작품이다. 여주인공 이현영이 여섯 차례나 자결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자결 시도는 여러 연구에서 주목받았으나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현영의 자결 시도는 자결 시도의 계기-자결 시도의 수행-타인에 의한 구조-타인과의 논쟁-자결 시도의 (일시적) 포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현영을 구조하는 등장인물의 형상과 그 인물의 설득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자결 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현영은 여섯 차례 자결 시도를 거듭하는데, 그녀를 설득하는 인물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421)

이 논문은 2023년 국문학회 하계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자 진기화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조언해 주신 선생님들과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사를 전한다.

**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강사

유모, 당(唐) 전기(傳奇) 『유의전』의 용녀, 왕안석, 과부 정씨, 시아버지 소송 등이다.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현영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열(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열(烈)의 정신성과 육체성 가운데 정신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작품이 향유되던 18세기 남편을 따라 죽는 종사(從死)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고전장편소설, 옥원재합기연, 자결 시도, 열(烈), 종사(從死)

1. 서론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자결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¹⁾ 여성 인물은 실절(失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결을 시도한다.²⁾ 그런데 다

1)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은 유럽 문화권의 자살을 연구하면서 자살을 “희생자 자신이 발생할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의 경우”라고 정의하였다(에밀 뒤르켐 저, 변광배 역, 『자살-사회학적 연구』, 세창출판사, 2021, 14면). 독일의 작가 게르트 미슐러(Gerd Mischler, 1970~)는 여러 문화권의 자살을 검토하면서 자살을 “자신의 행동이 죽음을 물고 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게르트 미슐러 저, 유혜자 역, 『자살의 문화사』, 시공사, 2002, 21면). 본고에서는 게르트 미슐러의 정의를 수용하되, 『옥원재합기연』에서 사용되는 “자결(自決)(권4)”, “자진(自盡)(권4)”, “자사(自死)(권4)” 등의 단어 가운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자결(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기숙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자살과 원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 고전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이후 주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선현은 에밀 뒤르켐의 자살 유형을 바탕으로 『운영전』, 『최척전』, 『숙영낭자전』에 나타나는 자살의 양상을 분류하였다(김선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자살 모티프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수연은 『운영전』에 나타나는 운영의 자살심리를 분석하여 현대인에게 이 작품이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최근에는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이 확대되었다. 정선희는 고전소설에서 죽음을

수의 장편소설에서 자결 시도는 한두 차례에 끝날뿐이며 실제로 자결에 성공하는 여성 인물도 많지 않다.³⁾

이러한 맥락에서 『옥원재합기연』 연작은 독특한 작품이다. 소설에서 이현영은 자결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그로 인해 선행연구에서 이현영의 자결 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먼저, 자결 시도가 유교 이념에 대한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정병설은 이현영의 삶이 죽음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유교 이념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다.⁴⁾ 최호석은 정절을 지키려는 이현영의 행동에 대해 칭찬과 비판이라는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법에서 내포하는 성적 차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⁵⁾

한편 이현영의 자결 시도가 유교 이념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개성의 표출이기도 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지하는 정혼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해출하고 자결을 시도하는 이현영의 행위가 부당한 가부장권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적 자존심과 주체성의 표현이라고 평가하였다.⁶⁾ 엄기영은 이현

선택한 여성들의 감정을 중심으로 그들의 선택이 지니는 의미를 살폈다(정선희, 『고전소설에서 죽음을 선택한 여성의 감정과 반응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황지현은 장편소설에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살이 사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위계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살 시도가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지현, 『의사소통 수단으로 선택된 자살 시도의 의미 - 부모가 자식에게 발화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5, 한국고소설학회, 2023).

3) 이정작(李庭錫, 1678~1758)의 『옥린몽』에 주인에 대한 충(忠)과 남편에 대한 열(烈) 사이에서 고민하다 목숨을 끊는 시비가 등장한다. 유혜란과 범경문은 정혼을 했으나, 공주의 딸인 여교란이 범경문을 보고 반해 공주를 조르는 바람에 범경문은 여교란과 먼저 혼인하게 된다. 이후 범경문은 과거에 급제하여 유혜란과 혼인한다. 여교란은 유혜란을 쫓아내기 위하여 유혜란이 사통을 저지른 것처럼 꾸민다. 결국 유혜란은 영릉으로 귀양 가게 되는데, 여교란은 유혜란의 정절을 훼손하기 위해 위격 일행을 보낸다. 위격 일행은 도적으로 가장하여 유혜란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유혜란이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이 시비이며 시비 운홍이 주인인 것처럼 가장한다. 운홍은 순순히 주인을 대신하여 잡혀간다. 운홍은 위격과 혼인하여 살아가다가 기회를 틈타 주인을 위해서 등문고를 올린다. 운홍은 위격의 사형이 결정되고 자신은 사면받자 위격의 앞에서 목숨을 끊는다. 이후 운홍은 유혜란의 꿈에 나타나 부처의 인도를 받아 유혜란의 아들로 환생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4)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48면.

5)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132면;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의 남과 여」,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293~294면.

6)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보고서, 2015, 155면.

영이 겪은 고난이 서사적 장치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그녀의 성격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분석하였다.⁷⁾ 이상의 논의는 이현영의 자결 시도가 작품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적실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자결 시도 자체에 주목했을 뿐,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한편 자결 시도가 내포하는 이념적 논쟁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한길연은 이현영의 자결 시도가 반복되면서 자결과 절(節)에 대한 의론을 일으키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의론을 통하여 인물들은 자신의 편협성을 돌아보고 점차 성숙해진다는 것이다.⁸⁾ 전기화는 이현영의 자결 시도 과정에서 그녀가 왕안석, 소송 등과 주고받은 대화가 윤리적 논쟁을 담론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들과의 대화는 이현영의 삶에 투생(偷生)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들의 설득으로 그녀가 이분법적인 태도를 버린다는 것이다.⁹⁾ 그런데 이들 논의는 여러 자결 시도 가운데 일부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이현영의 자결 시도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⁰⁾ 그녀의 자결 시도는 자결 시도의 계기, 자결 시도의 수행, 타인에 의한 구조, 타인과의 논쟁, 자결 시도의 (일시적) 포기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결 시도를 단편적으로 독해하기보다는 ‘장면전개’라는 개념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¹¹⁾ 이때 이현영과 논쟁을 벌이는 인물에 주목하여 그 인물의 형상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7)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8~39면.
- 8) 한길연, 『조선후기 대화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147~151면.
- 9) 전기화,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수치심의 역학」, 『고전문학연구』 62, 한국고전문학회, 2022, 415~419면.
- 10) 본고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원재합기연』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제목, 권수, 면수만 적는다. 한자병기는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 11) 정병설은 고전장편소설의 장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면전개’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장면전개는 “장면을 중심으로 생략, 요약, 묘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사학에서의 ‘장면’이 가장 중요한 서사 형식으로 기능하는 부분으로서 그것이 전개되는 전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88~89면).

II. 자결 시도의 양상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서사는 크게 이현영과 소세경의 혼사장애가 등장하는 전반부와 경병희와 이현윤의 혼사장애가 등장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이현영의 자결 시도는 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녀는 총 여섯 차례 자결을 시도한다.¹²⁾ 그러나 이현영은 결국 살아남았으며 황제로부터 열녀로 표장된다.

이현영이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주변 인물들이 자결을 말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현영의 칼을 빼앗고 물에 빠진 그녀를 구조하는 등 물리적으로 자결을 말리는 한편으로 대화를 통하여 그녀를 설득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현영의 자결 시도는 자결 시도의 계기-자결 시도의 수행-타인에 의한 구조-타인과의 논쟁-자결 시도의 (일시적) 포기로 전개된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이현영의 자결 시도 양상

| | 계기 | 수행 | 타인에 의한 구조 | 타인과의 논쟁 | (일시적) 포기 |
|-------|---|--------------|-------------|---|---------------------------|
| 1차 시도 | 이현영이 유모를 통해 아버지 이원외가 자신을 양안석의 아들 왕방에게 혼인시키려는 것을 알게 됨. | 칼로 목을 찌려고 함. | 유모가 붙들어 말림. | 유모가 진외가의 구양수에게 의탁하여 구양수가 이원외를 설득하게 하자고 함. | 이현영이 유모와 함께 남복을 개작하고 가출함. |

12) 연구자에 따라서 이현영의 자결 시도 횟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최길용은 이현영이 세 번 투신하고, 두 번 자액(自縊)했다며 다섯 차례 자결 시도를 했다고 보았다(최길용, 「<옥원재합기연> 연작, 『조선조 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335면). 이와 달리 한길연은 이현영이 여섯 차례 자결 시도를 했다고 보았다(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 고소설학회, 2003, 296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원외가 이현영을 권세가에 시집 보내려고 하자 이현영이 칼로 목을 찌려다 유모의 만류로 그만두는 행위를 자결 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짧은 서술이지만 자결 시도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현영의 자결 시도를 총 여섯 차례로 본다.

| | | | | | |
|-------|--|---|---|--|---|
| 2차 시도 | 이현영이, 객점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소세경에게 회롱당함. | 반강에 몸을 던짐. | 전당호 용궁으로 가게 됨. | 동정낭님이 자신이 두 번 곁 혼했지만 십도 수족이 자신의 정절을 표하고 삼산 선비가 대덕을 공경한다고 함. | 이현영이 전당 용궁의 명령으로 인간세계로 돌아감. |
| 3차 시도 | 왕안석이 물에서 건져내자 이현영은 외간 남자와 접촉하였다고 생각함. | 금릉 채석강에 몸을 던짐. | 하늘의 뜻으로 강물에서 다시 솟구쳐 오름. | 왕안석과 이현영이 자결이 옳은지를 논쟁함. | 이현영이 왕안석의 논리에 감복하여 왕안석과 부녀(父女)의 의(義)를 맺음. |
| 4차 시도 | 이현영이 왕안석의 머느리 안씨와 대화하다 왕안석이 왕방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됨. | 남북으로 개착하고 동구 밖 괴화나무에 목을 맨. | 왕안석의 처제 정씨가 그 광경을 보고 이현영의 외사촌 공생을 보내 살려냄. | 이현영의 꿈에 외조부가 나와 이현영을 경계함. 이현영이 깨어나자 정씨가 이현영이 자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설득함. | 이현영이 정씨의 도움으로 외삼촌 공종의 집으로 거처를 옮김. |
| 5차 시도 | 이현영이 부모가 자신을 속이고 왕방과 혼인시키려는 것을 알게 됨. | 잠룡지에 몸을 던짐. | 소송과 소세경이 이현영을 건짐. | - | - |
| 6차 시도 | 이현영이 낯선 남자들이 자신을 구조한 것을 알게 됨. | 피를 토하고 기절했다가 다시 약을 먹여 소생시키자 이불속에서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목을 조름. | 소송과 소세경이 머리카락을 풀고 약을 먹여 살림. | 이현영이 자기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자 소송이 이현영이 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득함. | 외삼촌 공종환과 다시 만나 석명철의 집에 머물게 됨. |

1. 1차 시도

소송과 이원외는 아들 소세경과 딸 이현영을 혼인시키기로 약조한다. 그러나 소세경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소송이 여혜경 일당의 실정을 논하

다 적소로 떠나자 이원외는 소송에게 등을 돌리고 여혜경에게 소세경까지 죽이자고 부추긴다. 소세경은 여장을 하고 숨어지내다 이원외의 집안에 팔려 가서 이현영의 시비가 되는데, 자신을 여자로 알고 검탈하려는 이원외를 마구 때리고 도망친다. 이현영은 규방에 외간 남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진 데다 아버지가 자신을 억지로 왕안석의 아들 왕방과 혼인시키려 하자 단도(短刀)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자 한다. 이에 유모가 목숨을 버리는 대신에 진외가의 구양수를 찾아가자고 설득하고, 그 간곡함에 흔들려 남북으로 갈아입고 집을 떠난다.

2. 2차 시도

이현영이 유모와 함께 구양수를 찾아가다 잠깐 객점에 머문다. 객점 주인에게 구양수의 행적을 물으니 이미 영주로 쫓겨되었다고 하여 좌절한다. 이때 소세경이 우연히 이현영의 옆방에 묵었다가 열(烈)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결심을 듣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동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소세경이 이현영의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그가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讎)라며 칼을 던진다. 이에 소세경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현영을 희롱한다. 외간 남자에게 희롱당했다고 생각한 이현영은 강물에 몸을 던진다.

이때 이현영은 용궁으로 가서 전당용군 부부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이현영에게 본디 그녀가 자신들의 딸이라고 밝힌다. 이현영은 그들에게 “소네 인세(人世)에 거(居)혀 여희디 못혀더니 이제 본성(本生)의 도라오니 가(可)히 혼(恨)이 업스디 다만 일신(一身)이 두 곳의 훼손(毀)혀 실절(失節)한 계집이 되고 늦출 벗기고 이 술을 ㄹ지 아닌즉 엇디 흐리잇가”¹³⁾라고 말하며 괴로워한다. 그녀는 아직 소세경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전당용군 부부는 이현영에게 사건의 진상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사촌 언니와 형부라며 동정낭낭과 유진군을 소개한다.

이들은 바로 당(唐) 전기(傳奇) 『유의전(柳毅傳)』의 등장인물로, 조선 후기 소설과 야담에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¹⁴⁾ 이 작품은 유의라는 서생이

13) 『옥원재합기연』 권1, 90a면.

14) 『유의전』과 야담의 관련 양상은 다음 논문에서 보인다.

김동욱, 「전기적 야담 <이의담>의 생성과 유변양상」, 『중국문학연구』 25, 한국중문학회,

과거에 낙방하고 경양(涇陽)으로 가면서 시작된다. 유의는, 남편 경양군(涇陽君)에게 핍박받고 시부모에게 미움받아 시가에서 쫓겨난 동정용녀를 만난다. 용녀는 동정호(洞庭湖)에 가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유의가 동정군(洞庭君)에게 편지와 함께 용녀의 소식을 전하자 동정군의 동생 전당군(錢塘君)이 경양으로 가서 조카사위를 잡아먹고 조카를 데려온다. 전당군은 유의에게 용녀와 혼인하라고 강요하는데, 유의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유의는 인간세계로 돌아와서 용궁에서 받은 재물로 부유하게 살지만 안타깝게도 두 번이나 사별의 아픔을 겪는다. 이어 과부인 노씨와 혼인하는데, 그녀가 바로 동정용녀였다. 이후 부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신선이 된다.¹⁵⁾

『옥원재합기연』에서 『유의전』의 동정용녀는 동정낭낭으로 등장하여 이현영에게 자신의 인생 역정을 풀어놓는다.

“현미(賢妹)는 안자 내 말을 드르라. 선비는 뜻을 허(許)하고 녀즈(女子)는 얼굴을 열(悅)혼다. 흐거니와 남녀(男女)의 뜻 잡기 어는 다르리오. 심식 생즈(生子) 하나 입을 좁가 절(節)을 덕회고 나뉘(羅敷) | 얼굴을 드러시나 뜻을 잡아 물니치니 이 다 정절(貞節)이니 엇디 구투어 녀중성녀(女中聖女)만 녀즈(女子)의 고절(高節)이리오. 시운(時運)을 그릇 만나 광부(狂夫)에게 몸을 버리니 슈욕(受辱)을 춤고 목숨을 □ 뜻은 용봉(龍逢)의 절(節)을 덕회여 죽으른 적고 이윤(伊尹)이 탕(湯)을 섬겨 천하(天下)를 건디른 큰 줄 알미라. 유즈(柳子)의 늙흔 형실(行實)을 경양(涇陽)의셔 아라보고 그 은혜(恩惠)를 님으니 뜻을 허(許)함미오. 탁금(橐金)을 물니쳐 머리털흘 버히른 범(范)·동행(中行)과 지탁(智伯)이 다르므로써라. 십도(十道) | 슈족(水族)이 나의 정절(貞節)을 표(表)하고 삼산(三山) 선비 덕덕(大德)을 공경(恭敬)하니 뉘 날노써 더러운 계집이라. 허더노? 군즈(君子) 의포(疑褒)를 당(當)하고 훼방(毀謗)호물 두리디 아낫거늘 더욱 현미(賢妹)는 완농(玩弄)의 방일

2002; 김낙철, 「〈유의전〉과 〈의남임수환유철〉의 관계성 소고」, 『중국소설논총』 39, 한국중국소설학회, 2013.

한편 『구운몽』은 여러 전기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바, 양소유와 결연하는 백능과는 유의의 아내인 용녀의 동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양소유가 용왕에게 유의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2, 한국한문학회, 1998, 22~23면; 정길수, 「전기소설의 전통과 <구운몽>」,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355~361면).

15) 정법진 편역, 『앵앵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101~126면 참조.

(放逸)이 되나 이 곳 부유(浮游)의 희롱(戲弄)이오 실상(實狀)은 전인(前人)이 후인(後人)이오 후인(後人)이 전인(前人)이니 뜻이 놓고 일이 발간는디라. 엇디 고집(固執)홀 비리오.”¹⁶⁾

동정낭낭은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에 나오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단장한다(士爲知己者死, 女爲悅己者容)”¹⁷⁾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남녀의 절개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자신이 광부(狂夫)에게 몸을 버렸으나 수욕(受辱)을 참고 목숨을 부지한 이유에 대하여 걸왕(桀王)의 고사를 들어 설명한다. 중국 하(夏)나라 걸왕(桀王)은 주색에 빠져 폭정을 저질렀는데, 주지육림(酒池肉林)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관용봉(關龍逢)이라는 관리가 걸왕에게 매번 직간 하지만 걸왕은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나 하나라의 관리였던 이윤(伊尹)은 당시 제후국이었던 상(商)나라의 탕왕(湯王)을 도와 걸왕을 몰아내고 탕왕이 천하를 차지하게 한다.¹⁸⁾ 동정낭낭은 관용봉과 이윤의 사례를 들면서, 절개를 지키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천하를 구하는 것은 큰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결국 자신이 두 번 혼인했으나 십도(十道) 수족(水族)이 자신의 정절을 표창하고 삼산(三山) 선비가 자신의 대덕(大德)을 공경한다며, 누가 자신을 더러운 계집으로 보냐고 반문한다. 여기서 두 번 혼인한 용녀 또한 정절과 대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현영은 전당용군의 명에 따라 인간세계로 돌아간다.

3. 3차 시도

인간세계로 돌아간 이현영을 왕안석 일행이 물에서 구조한다. 왕안석 일행은 이현영과 유모를 희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이현영은

16) 『육원재합기연』 권1, 90b~91b면.

17)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사기열전1』, 민음사, 2010, 630면.

18)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위의 책, 659~697면;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사기본기』, 민음사, 2015, 88~99면.

자신을 구한 사람이 낯선 남자라는 것을 알고 다시 물에 뛰어든다. 그때 물이 솟구쳐올라 이현영이 배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에 왕안석은 이현영에게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현영은 이에 대해 반박하다가 결국 그의 논리에 수긍하여 부너지의를 맺는다.

이현영의 자결을 말리는 인물이 바로 왕안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원재합기연』에 등장하는 왕안석은 북송대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초창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왕안석에 대한 평가는 조선 시대의 주류적 평가와 달리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평가와¹⁹⁾ 사서를 통해서 볼 때 주류적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평가로 나누어진다.²⁰⁾ 그러나 한길연의 분석처럼 『옥원재합기연』의 왕안석은 이현영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인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²¹⁾

그런데 왕안석이 며느리를 병든 아들과 이혼시킨 후 개가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송대 위태(魏泰)의 『동헌필록(東軒筆錄)』에 왕안석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다. 왕방은 방씨(龐氏)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왕방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결국 아들은 충격으로 죽게 되고 왕방과 방씨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에 왕안석은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며느리를 양녀로 삼아 개가시킨다.²²⁾ 물론, 『옥원재합기연』에서 왕방의 아내가 개가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개가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았던 왕안석이 열(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다고 설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이하, 앞의 책.

20) 지연숙, 「〈옥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왕안석의 인물 형상 연구」, 『어문논집』 71, 민족어문학회, 2014.

21) 한길연, 「18세기 문계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타자의 서사’와 ‘포월의 미학’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346면.

22) 魏泰, 『東軒筆錄』.

4. 4차 시도

왕안석은 이현영의 유모에게 이현영이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을 전해 듣고, 자신의 정체(正體)가 밝혀지면 이현영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으리라 짐작한다. 이에 이현영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이름이 ‘왕태보’이며 아들의 이름이 ‘왕균’이라고 한다. 이현영은 그의 집에서 삼 년 동안 머무른다. 그런데 왕안석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경사(京師)로 가게 되자 왕방의 첫째 부인 안씨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왕안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이현영은 왕안석이 준 여복을 벗고 남복으로 바꾸어 입은 다음에 동구 밖으로 나가 괴화나무에 목을 맨다. 이 광경을 본 왕안석의 처제인 정씨는 이현영의 외사촌 공생을 시켜 이현영을 구조하게 한다.

이현영은 꿈에서 외조부의 경계를 듣게 되는데, 외조부는 범질(范質, 911~964) 등과 함께 와서 유체를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말한다. 범질은 중국 오대(五代) 말에 후당(後唐), 후주(後周), 후진(後晉), 후한(後漢)에서 벼슬을 했으나 북송(北宋) 대 노국공(魯國公)에까지 봉해진 인물이다.²³⁾ 이현영은 깨어나자 자신을 돌보고 있는 소복을 입은 부인과 만난다. 이 부인은 바로 정씨였는데,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고 있었다. 정씨는 이현영을 설득하여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 정씨는 이현영이 죽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한다. 이에 이현영은 왕안석의 집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며 살려고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정씨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그녀를 설득한다.

당시 참연(慘然) 절탄(節歎) 왈(曰),

“닐지(烈哉)라, 소제(小姐)여. 천고(千古)의 구하기 어렵도다. 그러나 첩(妾)이 디(對)하여 속이디 아니리니 왕공(王公)이 소제(小姐)에게 본(本) 성명(姓名)을 기이른 가(可)히 숨기고져 은휘(隱諱)한 뜻이 아니라 소제(小姐)의 정칙(淨白)히미 이러듯 홀 줄 당자(長者)의 붉으미 묻져 알미라. 그씨의 형공(荊公)인 줄 아라신 즉 소제(小姐) 엇디 죽디 아녀시리오. 공(公)이 소제(小姐)를 건져 구하고 또 능(能)히 죽으물 괘시(愬視)히디 못하여 박부득(迫不得) 권술(權術)을 행(行)하여 소

23) 「범질」,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2063&docId=1702357&categoryId=62063>>, 검색일자: 23.08.10.

저(小姐)를 속이미 전혀 군자지심(君子之心)이오 공(公)의 아즈(兒子)이 비록 소저(小姐)의 혐의(嫌疑)하는 사람이 되나 공(公)이 하늘을 더하여 맹세(盟誓)하여 미자 부녀(父女)의 턴륜(天倫)이 덩(定)하여시니 공(公)의 즈데(子弟)라도 혐의(嫌疑)를 피하여 형미(兄妹)의 〃(義) 이시니 감히 더륜(大倫)을 어그러이리오. 이러듯 헤아리건디 소저(小姐)의 뜻흔배 도로혀 곡네(曲禮)라. 군지(君子) 감히 허물치 아니며 고인(古人)도 부즈(父子) 스이 현위(賢僞) 논호이매 의논(議論)이 각 〃 이시니 왕가(王家)의 즈데 비록 어딜 아나도 그 대인(大人)이 의기(意氣) 절인(絶人)하여 소저(小姐)로 부즈지의 등흔 줄 가히 저버리디 못홀디라. 소제(小姐) 삼년(三年)을 더의 문하(門下)의 잇던 줄 혐의(嫌疑)하여 망 〃(茫茫)이 그 문을 썩나 〃첩(妾)의 소견(所見)은 그러티 아닐 혐의(嫌疑)이신스록 더욱 부녀(父女)의 의(義)를 두터이 흐미 올홀가 흐느니 이제 하늘이 죽기를 허(許)티 아니시니 더의게 사라시물 告(告)흐미 올티 아니하라? 소제(小姐) 또 그릇 헤아려 몸이 왕시(王氏)의게 머므르던 줄 혐의(嫌疑)하여 다시 죽고져 흐시느냐? 24)

위의 인용문에서 정씨는 ① 왕안석이 이현영을 속인 것은 그녀를 살리기 위하여 권도를 행한 것이고, ② 이현영과 왕방이 비록 혐의가 있지만 왕안석과 이현영이 부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③ 왕방과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녀지의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이 말을 들은 이현영은 자신이 꿈에서 만난 동정낭랑과 범질은 비록 뜻을 굽혔으나 마음을正大하게 잡아서 열부가 되고 군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현영은 정씨에게 감복하여 죽지 않기로 하고 외삼촌 공중한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처럼 과부가 등장하여 여성에게 목숨을 부지하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5차 시도

왕안석과 공중한은 이현영을 경사로 데려와서 소세경과 혼인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왕안석은 왕방에게 이현영이 죽었다고 속여 폐백을 돌려받게 한다. 그런데 왕안석의 동생 왕안국과 그의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은 왕방이 이현영의 생존을 알게 된다. 이에 왕방은 상사병에 걸린다. 왕안

24) 『옥원재합기연』 권3, 3b~5a면.

석은 이현영의 얼굴을 모르는 아들을 속여 다른 여자와 혼인시키려 하지만 왕방의 둘째 부인 채씨가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한다. 왕방은 이원의 부부와 계략을 세워 이현영과 강제로 혼인하려 하지만 정씨가 이현영에게 편지를 보내 그 계략이 들통난다.

이에 이현영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창문을 열어 연못으로 뛰어든다. 용신과 풍백이 그녀를 구하여 반사의 여울에 걸리게 한다. 소송이 이현영의 투신을 듣고 그녀를 찾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장강으로 나간다. 이현영은 물에 떠내려가다 그들의 뱃전에 닿는다.

6. 6차 시도

이현영은 낯선 남자들이 자신을 구조한 것을 알고 피를 토하며 기절하였다가 이불속에서 정신을 차린다. 그러자 다시 죽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목을 조른다. 이에 소송 부자가 머리카락을 풀어내고 약을 먹여 회생시킨다. 소송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이현영이 자신은 시가에 들어갈 수 없는 데다 친정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이에 소송은 이현영이 소세경과 혼인하도록 설득한다. 한길연은 소송이 이현영에게 훈계하는 대목에 주목하였는데, 소송이 자결을 한다면 절개와 엄치는 얻을 수 있지만 효의(孝義)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근원을 버리고 의리를 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하였다.²⁵⁾ 이처럼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의 자결을 막는 것으로 이현영의 죽음은 지연된다.

III. 자결 논쟁의 의미

1. 문답의 수용과 소설적 실험

주지하다시피 한글장편소설에는 장면전개가 확대되어 있다.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장면전개 가운데 주요한 내용으로 가족회합과 예(禮)

25) 한길연, 앞의 책, 149~151면.

에 대한 관심을 들었다. 이 중에서 변례(變禮)에 해당하는 장면전개는 상례(常禮)로 풀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여, 인물을 갈등하게 하거나 다른 인물과 토론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²⁶⁾

『옥원재합기연』에서도 인물들은 예(禮)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다. 한길연은 이 작품에 이념적 논쟁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세경을 둘러싸고 효(孝)를 행하려 한 것이 불효가 될 수 있는 문제, 자신과 타인의 부모에 대한 효(孝)의 문제, 효(孝)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이현영과 관련해서는 자결 시도가 반복되면서 절개를 지키기 위한 자결의 정당성에 대한 의론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즉, 절(節)을 지키기 위하여 효(孝)를 버려도 되는지에 대한 의론, 절(節)이 편협한 성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념과 이념, 이념과 현실 사이의 상충이 짙진하게 형상화되고 있다고 하였다.²⁷⁾

이러한 의론적 대화는 먼저 소설이라는 서사 양식에 대한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김경미는 19세기부터 한문소설에 의론적 대화가 수용되어 소설 창작 방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생전(丁生傳)』, 『삼한습유(三韓拾遺)』, 『옥선몽(玉仙夢)』의 의론적 대화를 살폈는데, 의론적 대화를 삽입함으로써 지적 영웅을 형상화하고 서사 전개에 논리성을 확보하는 데다 주변적 목소리를 부각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유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소설이 당대의 과제를 논하는 토론의 장(場)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²⁸⁾

『옥원재합기연』에서도 여성 인물이 역대 명사와 논쟁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현영은 소송이나 왕안석과 같은 북송대의 명유(名儒)에게 자신의 의론을 당당하게 펼친다. 이를 통하여 이현영이라는 인물의 명철함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현실에서는 윤리적 의론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이 의론의 장(場)에 참여하는 모습이 형상화된다. 왕안석이 강에서 구조한 이현영과 나누는 대화를 살펴본다.

26) 정병설, 앞의 책, 95~123면.

27) 한길연, 앞의 책, 145~147면.

28) 김경미, 「조선 후기 한문소설의 의론적 대화 양상과 그 의미-〈정생전〉, 〈삼한습유〉, 〈옥선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1), 한국고소설학회, 1999, 103~135면.

공(公)이 왓(曰),

“불연(不然)하다. 죽는니는 불과(不過) 예의(禮義) 염치(廉恥)라. 예의(禮義) 염치(廉恥)는 성인(聖人)이 불히시니 성교(聖教)를 추이(推移)하여 어이 듯디 아니리오. 네 관둥(管仲)이 명절(名節)을 굽혀 일광던하(一匡天下)하니 또한 공지(孔子) 일크리신 배요 근니 풍도(馮道) 오대(五代)를 연(連)하여 섬기니 이 가히 정절(貞節)이 업스미 아니라 몸을 버려 천하(天下)를 평복(平伏)하고 빅성을 건져니 만일 이에 니르히 풍도(馮道)의 법(法)이 아니런들 엇디 능(能)히 중화(中華)를 보전(保全)하여시니 이러므로 성인(聖人)이 관둥(管仲)을 허허시고 군지(君子) 풍도(馮道)를 기리니니 소제(小姐) 만일(萬一) 부모(父母)의 유체(遺體)를 가비아 장적(戕賊)디 말고 효(孝)를 보전(保全)하여 취사(墜死)를 면환(免患)하며 규측(閨則)을 천추(千秋)의 드리오면 엇디 아롭담기 공강(共姜) 영녀(令女)에 비기리오. 예 동정(洞庭) 희신(海神)이 경양(涇陽)을 버서나 뉴군(柳君)을 조차 빅두(白頭)를 명세(盟誓)하여서 뵈여시니 그 뜻을 덕히는 절기(節概)에 신령(神靈)이니 닐 더리오미 잇다호는뇨?”

소제(小姐) 문파(聞罷)의 정히 디왓(對曰),

“첩이 고루(固陋)하고 험천(所見)이 편식(偏塞)하나 사대(四代) 십군(十君)을 감심(感心) 난륜(亂倫)은 풍시(馮氏)와 아성(亞聖)의 버리신 실절(失節)은 관이오(管夷吾)의 무리는 구투여 듯고져 아니호는니 호물며 지아비를 잔희(殘害)하고 구가(舅家)를 멸(滅)호는 축생(畜生)이야 참논(參論)하리이잇가?”

공(公)이 텅홀(聽訖)의 잠소(潛笑) 왓(曰),

“불연(不然)하다. 관둥(管仲)은 오히려 군지(君子) 아니라 호는니 잇거니와 위징(魏徵)은 당시의 명직(名直)은 신해(臣下)로더 세 님군을 갈고 우리 국초(國初) 범노공(范魯公)은 니로운 현인(賢人) 군즈(君子)로 통의(忠義) 관일(貫一)호디 형세(形勢) 호물 업스미 몸을 성주(聖主)의 굴(屈)하여시니 소제(小姐) 이긋치 정식(正色)호는뇨? 연(然)이나 내 구투여 소제(小姐)로써 절(節)을 굽혀 닐녀(烈女)의 불경이부(不更二夫)호물 말나 뜻이 아니라 일자(一者)는 부모(父母)의 유체(遺體)를 완전(完全)이 하고 텅명(天命)을 순(順)히 하여 방신(芳身)을 보전(保全)하여 만일(萬一) 도라갈 곳이 맞당치 아니커든 고요히 정신(情神)을 고쳐 일월(日月)을 소겨 금전의 농호(龍虎)를 거스려 남악(南岳)의 자취를 구(求)치 아니면 공문(空門)의 수도(修道)하여 니세(來世)를 닥으며 과보(果報)를 소멸(消滅)하여 청정(淸淨)호도(道)를 초츠면 이 곳 슈육(受辱)을 버서나고 몸이 텅디(天地)의 그죽(可)히 엇더호는뇨? 이 두 가지로써 명교(名教)의 본(本)이 아니라 하고 닐스(烈死)의 명절(名節)을 구(求)홀딘디 협기(俠氣)에 명(命) 버리기 또 명교(名教)의

단이 아니라. 설영(設命) 죽을디라도 이 곳의서 죽으메 불가(不可)호미 삼(三)이 니 일(一)은 부모(父母)의 유체(遺體)로써 오작(烏鵲)을 주미 불회(不孝) 크미오, 이(二)는 몸을 조장(鳥葬)호는 스이의 정신(情神)이 미양(每樣) 유전(有全)키 어려 우니 혹(或) 혼란(混亂)호 스이의 호광(豪狂)을 두 번 만나기 쉬오니 몸을 첨욕(添辱)호미오, 삼(三)은 세상(世上)이 훈박(寒薄)호니 누 소저(小姐)의 청백(清白) 고 절(高節)호물 알리오? 신명(身名)을 자백(自白)디 못호여 누 만세(萬歲)에 던(傳)호 미라. 고쳐 생각호여 노부(老夫)를 조츠 도라가 부모(父母)를 뵈고 소유(所由)를 밝힌 연후(然後)에 편히 나아가미 도리(道理) 합(合)디 아니냐?²⁹⁾

위의 인용문에서 왕안석은 훈추시대 관중(管仲)과 오대십국시대 풍도(馮道)가 섬기는 군주를 바꿨으나 천하를 안정시킨 사례를 들면서, 이현영이 부모의 유체를 보전한다면 공강(共姜)이나 영녀(令女)보다 열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공강과 영녀는 남편이 죽었으나 재가하지 않은 여성들로, 『소학(小學)』에 실려 있다. 공강은 남편이 죽자 「백주(柏舟)」 시를 지었다고 하며, 영녀는 남편이 죽고 부모가 개가시키려 하자 자해를 했다고 한다.³⁰⁾ 이에 이현영은 관중과 풍도는 본받을만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왕안석은 당(唐) 대 위징(魏徵)과 북송 대 범질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나라를 바꿨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부모의 유체를 온전히 하여 도교나 불교에 귀의한다면 수욕을 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게다가 만약 여기에서 목숨을 버린다면 부모의 유체를 새들에게 주는 것이 되고, 광한(狂漢)에게 다시 욕을 볼 수 있으며, 그녀의 절개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설득한다. 이에 이현영은 마음을 돌려서 왕안석을 따라간다.

이처럼 명유와의 논쟁을 통하여 이현영의 학식이 높은 경지에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논쟁은 작품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그 상대는 유모, 동정낭낭, 왕안석, 왕안석의 처제인 과부 정씨, 소송 등이다. 이 논쟁은 열(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열(烈)은 주로 여성과 관련된 윤리이지만 여기에 대한 논쟁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여성이 논쟁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에서 여성은 당대의 명유와 의론을 나누고 있다. 이는 비록 상상의

29) 『옥원재합기연』 권2, 1b~2b면.

30) 주희·유정지 편, 윤호장 역, 『소학』, 홍익출판사, 2005, 140, 243~244면.

공간을 빌린 것이지만 여성이 논쟁의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작품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향유되던 당대의 열(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종사(從死)에 대한 반론 제기

지금까지 이현영의 자결 시도는 인간적 주체성을 보여주거나,³¹⁾ 인격적 성숙을 드러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³²⁾ 물론, 이 작품이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평가는 타당하다. 그러나 여성의 자결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 문제였으므로, 당대의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이 작품에 나타난 자결 시도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래 열녀(烈女)는 개가할 수 있는 데도 개가하지 않는 여성을 의미하였다.³³⁾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열녀는 죽은 남편을 따라 죽거나 성적인 위협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여성들을 가리키게 된다. 강명관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국가 및 양반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적 종속성’이라는 관념을 퍼트렸고, 양란을 계기로 여성들의 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³⁴⁾ 이로 인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실록, 전(傳), 기문(記問), 묘지명에서 죽은 남편을 따라 죽거나 성적인 위협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³⁵⁾

양반 남성의 기록에서는 대부분 열녀를 칭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칭송은 주로 열(烈)의 양면, 정신성과 육체성 가운데 육체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호연(趙虎然, 1736~1807)은 「열부손유인전(烈婦孫孺人傳)」에서 남편이 병에 걸려 죽자 들보에 목을 매고 죽은 과부를 통하여 대절(大節)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³⁶⁾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절부변부인

31) 이지하, 앞의 책, 155면.

32) 한길연, 앞의 책, 147~151면; 전기화, 앞의 논문, 415~419면.

33) 이해순, 「열녀전의 입전식과 그 사상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화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9면.

34)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89~469면.

35) 위의 책, 475~484면; 박주, 『조선시대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25~27면.

전(節婦邊夫人傳)」에서 자신의 다리를 잘라서 병에 걸린 남편에게 피를 먹인 부인을 칭송한다.³⁷⁾ 이처럼 열녀전은 육체적 자기 파괴에 집중하여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종사(從死)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우에도 열(烈)의 육체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청장관전서』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에다 『회우록(會友錄)』의 비본(秘本) 일부를 싣고 논평을 달았다. 절개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목에서, 이덕무는 남편이 죽고 나서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절부(節婦)이고, 남편을 따라 죽거나 난을 당하여 굴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열부(烈婦), 폐백을 받고 나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정부(貞婦)라고 정의하면서, 따라 죽는 사람도 열부 이기는 하지만 경상의 도리가 아니라며, 상중에 너무 슬퍼하다가 죽은 효자 같은 경우라고 평가하였다.³⁸⁾ 즉, 종사는 부모가 준 육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양반 남성은 열(烈)의 정신성보다는 육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열(烈)의 정신성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에서 밤마다 정육에 괴로워하며 수절한 노모와 남편이 병사하자 목숨을 버린 창상과부를 대비한다.³⁹⁾ 이를 통해 열(烈)의 정신과 행위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이는 열(烈)의 정신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대 여성들은 열(烈)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가? 여성들의 자기서사에서는 대체로 열(烈)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난다.⁴⁰⁾ 그러나 종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성도 있었다. 이덕수(李德壽, 1673~1744)가 어머니 청송심씨(靑松沈氏, 1649~1727)를 위하여 쓴 「선비행록(先妣行錄)」에는 종사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36) 이혜순·김경미 역,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226~231면.

37) 위의 책, 181~186면.

38) 李德懋, 『靑莊館全書』, 「天涯知己書」, <筆談>.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7A_0630_010_0010_2006_A259_XML> 검색일자: 21.10.08.

39)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346면.

40) 조혜진, 「조선 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9~128면.

기록되어 있다. 청송심씨는 종사가 열(烈)을 쫓다가 효(孝)를 잃어버리는 경우라며 자신이라면 종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⁴¹⁾

『옥원재합기연』은 여러 인물의 입을 통하여 진정한 열(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유의전』의 동정용녀가 등장하여, 두 번 혼인한 자신도 정절과 대덕이 있다고 말하며, 머느리를 재가시킨 왕안석이 등장하여, 상황에 따라서 정절을 굽힐 수도 있으며 목숨을 호기롭게 버리는 것은 유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종사가 아닌 투생을 선택한 과부가 등장하여, 이현영의 자결이 천명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이 작품은 자결 시도의 장면전개를 통하여 열(烈)의 정신성과 육체성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성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 나타난 자결 시도의 장면전개는 당대 만연한 종사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은 진정한 열(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장면전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열(烈)의 실질적 행위자였으나 열(烈)에 관한 논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열(烈)에 관한 사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옥원재합기연』 연작에 나타난 자결 시도와 자결 논쟁을 살펴 보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현영은 수많은 자결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자결 시도를 단편적으로 살펴 보았을 뿐 전체 양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고는 ‘장면전개’라는 개념을 통하여 자결 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현영은 서사에서 여섯 차례 자결을 시도하는데, 이는 자결 시도의 계기 - 자결 시도의 수행 - 타인에 의한 구조 - 타인과의 논쟁 - 자결의 (일시적) 포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1차 시도에서는 유모가, 2차 시도에서는 동정낭님이, 3차 시도에서는 왕안석이, 4차 시도에서는 왕안석의 처제인 과

41) 김경미, 『가와 여성』, 도서출판 어이연, 2012, 192~193면.

부 정씨가, 5차와 6차 시도에서는 예비 시아버지 소송이 등장하여 이현영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진정한 열(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론의 성격を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자는 의론적 대화를 통하여 열(烈)의 육체성보다 정신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 연작은 진정한 열(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장면전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열(烈)의 실질적 행위자였으나 열(烈)에 관한 논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열(烈)에 관한 사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 작품과 다른 작품에 나타난 자결 시도를 비교하여 열(烈)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한문현토본 『현토옥린몽』(광익서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원재합기연』.

魏泰, 『東軒筆錄』.

李德懋, 『靑莊館全書』(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 단행본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게르트 미슬러 저, 유혜자 역, 『자살의 문화사』, 시공사, 2002.

김경미, 『가와 여성』, 도서출판 여이연, 2012.

박주, 『조선시대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사마천 저, 김원중 역, 『사기열전1』, 민음사, 2010.

_____, 『사기본기』, 민음사, 2015.

에밀 뒤르케 임, 변광배 역, 『자살-사회학적 연구』, 세창출판사, 2021.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역사, 2014.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보고서, 2015.

이혜순·김경미 역,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정범진 편역, 『앵앵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정병설, 『<완월희맹연> 연구』, 태학사, 1998.

주희·유청지 편, 윤호장 역, 『소학』, 홍익출판사, 2005.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3. 논문

김경미, 『조선후기 한문소설의 의문적 대화 양상과 그 의미-<정생전>, <삼한습유>, <옥선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1), 한국고소설학회, 1999, 103~135면.

김낙철, 『<유의전>과 <의남임수환유철>의 관계성 소고』, 『중국소설논총』 39, 한국중국소설학회, 2013, 37~62면.

김동욱, 『전기적 야담 <이의남>의 생성과 유변양상』, 『중국문학연구』 25, 한국중문학

- 회, 2002, 327~345면.
- 김선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자살 모티프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2면.
-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233~272면.
-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연구』 22, 한국한문학회, 1998, 13~42면.
-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7면.
- _____,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왕안석의 인물 형상 연구」, 『어문논집』 71, 민족어문학회, 2014, 63~94면.
- 진기화,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수치심의 역학」, 『고전문학연구』 62, 한국고전문학회, 2022, 399~437면.
- 정길수, 「전기소설의 전통과 <구운몽>」, 『한국한문학연구』 30, 한국한문학회, 2002, 353~379면.
-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317~332면.
- _____,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45~62면.
- _____,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231~259면.
- 정선희, 「고전소설에서 죽음을 선택한 여성의 감정과 반응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143~171면.
- 조혜진,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231면.
- 지연숙, 「<옥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155~185면.
-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 고전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325~355면.
-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117~138면.
- _____, 「<옥원재합기연>의 남과 여」,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275~300면.
- 한길연, 「18세기 문체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타자의 서사’와 ‘포월의 미

학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331~336면.
황지현, 「의사소통 수단으로 선택된 자살 시도의 의미 - 부모가 자식에게 발화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5, 한국고소설학회, 2023, 97~126면.

4. 기타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2063&docId=1702357&categoryId=62063>>, 검색일자: 23.08.10.

A Study on a Female Protagonist's Suicide Attempts
in *Ogwonjaehapgiyeon*

Cho, Haejin

This study investigates a female protagonist's suicide attempts in *Ogwonjaehapgiyeon*, a work of fiction writt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 far,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oints in the work involves a female protagonist who tried to kill herself six times but survived. Nevertheless, her suicide attempts in fiction have not been structurally analyzed.

I examined scenes and the corresponding meanings of the protagonist's suicide attempts in *Ogwonjaehapgiyeon*. Hyeonyeong, the character who attempted suicide six times, was saved by other people such as a nanny, a character from Tang chuanqi named *Liyizhuan*, a historical character, a widow, and father-in-law. She finally decided to live as they persuaded her to stop killing herself by suggesting other options.

Many widows killed themselves when their husbands contracted fatal illnesses in 18-19th century Korea, a phenomenon that can be said to have resulted from oppression by the patriarchy. *Ogwonjaehapgiyeon* focused the debates on chastity between Hyeonyeong and the other people, making the narrative interesting. Also, the work asserted that people should not recommend that widows take their own lives.

Keywords: Korean Classical Long Fiction, *Ogwonjaehapgiyeon*, Suicide Attempts, Chastity, Widows' Suicide Attempts

접수일자: 2023. 9. 30.
심사기간: 2023.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3. 11. 10.